

맹장염과 급성 게실염, 응급 대응 가이드

급성충수염 (Acute Appendicitis) 과 급성 게실염 (Acute Diverticulitis) 의 임상 감별과
위험 신호

갑작스러운 복통, 무엇을 의심해야 할까요

맹장염과 계실염은 시간 싸움 — 조기 발견이 합병증을 막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되면 단순한 체기가 아니라 외과적 응급일 수 있습니다.**

급성충수염과 급성 계실염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천공·복막염으로 진행할 수 있는 외과적 응급 질환입니다. 두 질환은 통증 부위와 호발 연령이 다르지만, 자가진단만으로는 구분이 어렵고 영상 검사(CT 또는 초음파)와 진찰이 필요합니다. 위험 신호를 알면 응급실로 갈 시점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APPENDICITIS LIFETIME RISK

약 7%

평생 동안 충수염에 걸릴 확률 — 10대 후반~30대에 호발.

DIVERTICULITIS

중장년 이상

고령일수록 빈도 증가 — 한국인은 우측 결장 계실이 더 흔함.

급성충수염 (Acute Appendicitis) 이란

가장 흔한 외과적 응급 질환 — 충수돌기의 폐쇄·세균 증식으로 발생합니다

맹장 끝에 달린 **충수돌기 (Appendix)** 가 막히고
염증이 생겨 부풀어 오르는 질환입니다.

대변 덩어리·림프조직 증식 등으로 충수돌기 입구가 막히면 내부 점액이 고이며 세균이 증식해 염증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배꼽 주변이 막연히 아프다가, 4~12시간 사이에 통증이 우하복부 (RLQ) 로 이동하는 것이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24시간 이상 방치하면 충수가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조기 진단이 핵심입니다.

PEAK AGE

10 – 30대

청장년층에서 가장 흔하지만 모든 연령에서 발생합니다.

PERFORATION RISK

24시간 이후 ↑

증상 발생 후 24시간이 지날수록 천공 위험이 급격히 증가.

급성 게실염 (Acute Diverticulitis) 이란

대장 벽이 약해진 부위가 주머니처럼 튀어나와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대장 벽이 약해진 곳에 생긴
게실 (Diverticulum) 에 변
찌꺼기가 끼어 염증을
일으킨 상태입니다.

게실 자체는 무증상으로 평생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게실 입구가 막히고 세균이 증식하면 급성 염증이 생깁니다. 서양인은 좌측 (S상결장) 게실염이 흔하고, 한국인은 우측 (맹장 부근) 게실염이 더 흔해 충수염과 헛갈리기 쉽습니다. 천공·농양·누공·협착 등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정확한 영상 진단이 필요합니다.

KOREAN PAT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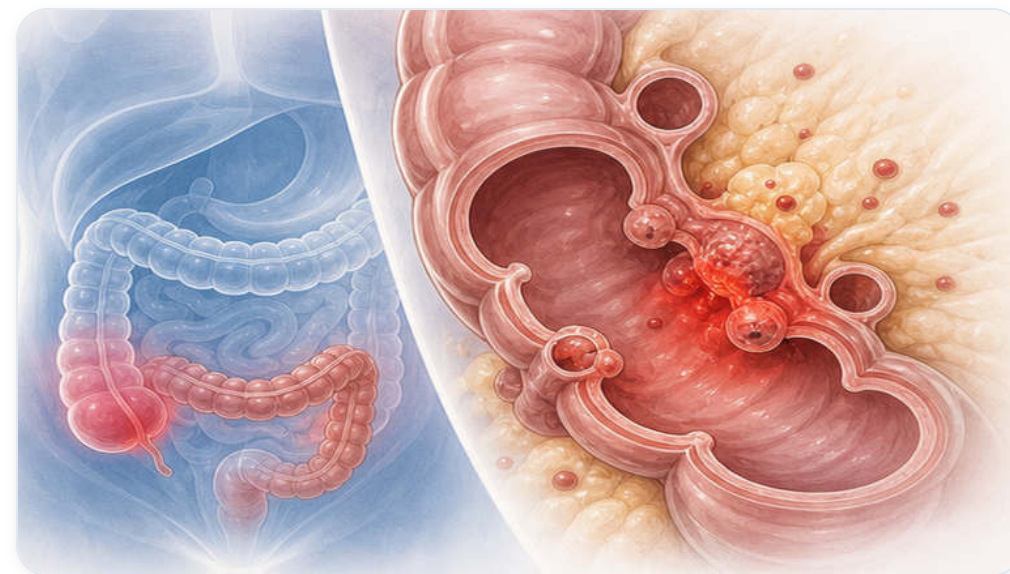
우측 호발

한국인은 우측 결장 게실이 더 흔해 충수염과 감별이 어렵습니다.

ONSET AGE

중장년 이상

고령·고지방 식이·변비·비만이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맹장염 vs 급성 게실염 비교

증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통증 부위·호발 연령이 다릅니다

A 급성충수염 (Appendicitis)

- 통증 부위 — 오른쪽 아랫배 (RLQ)
- 배꼽 주변에서 시작해 우하복부로 이동
- 발병 연령 — 10~30대 청장년 호발
- 주요 증상 — 식욕 부진·오심·이동성 통증
- 치료 원칙 — 수술적 절제 (충수절제술) 표준
- 지연되면 복막염·패혈증 위험

B 급성 게실염 (Diverticulitis)

- + 통증 부위 — 좌측 (서양) 또는 우측 (한국)
- + 한국인은 우측이 흔해 충수염과 감별 필요
- + 발병 연령 — 중장년 이상 호발
- + 주요 증상 — 국소 압통·발열·변비/설사
- + 치료 원칙 — 생장식·항생제 (외래/입원)
- + 합병성이면 배농·수술 고려

집에서 의심해 볼 수 있는 6가지 신호

아래 양상이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면 진료를 미루지 마세요

SIGN · 01

이동성 복통

처음에는 배꼽 주변이 막연히 아프다가 4~12시간 후 우하복부 (RLQ) 로 통증이 옮겨가는 양상은 충수염의 전형적 신호입니다.

SIGN · 02

반발통 (Rebound)

우하복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누른 뒤 빠르게 떼었을 때 더 아프면 양성. 복막 자극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SIGN · 03

식욕 부진 · 오심

평소 즐기던 음식도 입맛이 없고 메스꺼움·구토를 동반하는 경우 — 단순 체기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SIGN · 04

기침·점프 시 악화

기침을 하거나 발뒤꿈치로 바닥을 짚을 때 우하복부가 찢어지면 복막 자극을 시사 — 게실염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SIGN · 05

국소 압통 (게실염)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정확히 짚을 수 있는 압통 — 한국인은 우측 결장 게실염일 때 충수염과 비슷한 위치에서 나타납니다.

SIGN · 06

미열 (37.5~38°C)

초기에는 미열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 38°C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발열이 높을수록 염증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큼니다.



반발통 자가 점검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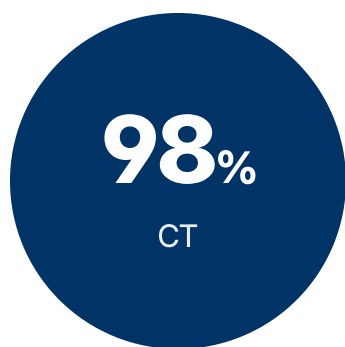
통증 부위를 확인하는 간단한 자가 점검 — 단, 진단은 의료진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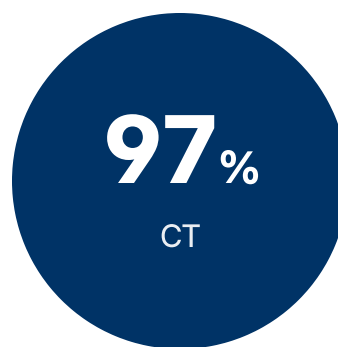
주의 자가 검사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자가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의료진에게 진찰을 받으세요.

진단 검사 — 복부 CT의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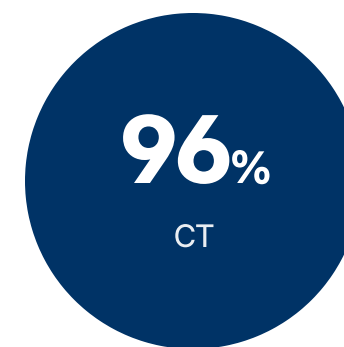
실제 임상에서 가장 표준적인 검사는 복부 CT — 초음파보다 모든 지표에서 우수합니다



민감도 (Sensitivity)
실제 환자를 발견할 확률



특이도 (Specificity)
비환자를 정확히 배제할 확률



전체 정확도
(Diagnostic accuracy)

참고로 복부 초음파는 민감도 약 85%, 특이도 90%, 정확도 83%로 CT보다 낮지만 방사선 노출이 없고 임신부·소아에 1차 검사로 사용됩니다. 영상 검사만으로 100% 확진할 수 없으므로 진찰 (압통·반발통)·혈액 검사 (백혈구·CRP)·환자 병력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CT와 초음파, 어떻게 선택할까요

각 검사의 장단점 — 환자 상황 (연령·임신·증상 정도) 에 따라 선택합니다

CT · PROS

복부 CT 장점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 — 합병증 (천공·농양) 평가에 유용. 성인·중증 의심·복부 둔진단 시 1차 권장 검사입니다.

CT · CONS

복부 CT 단점

방사선 노출, 조영제 알레르기 가능. 임신부·소아·반복 검사 시 누적 피폭 부담이 있어 신중히 선택합니다.

US · PR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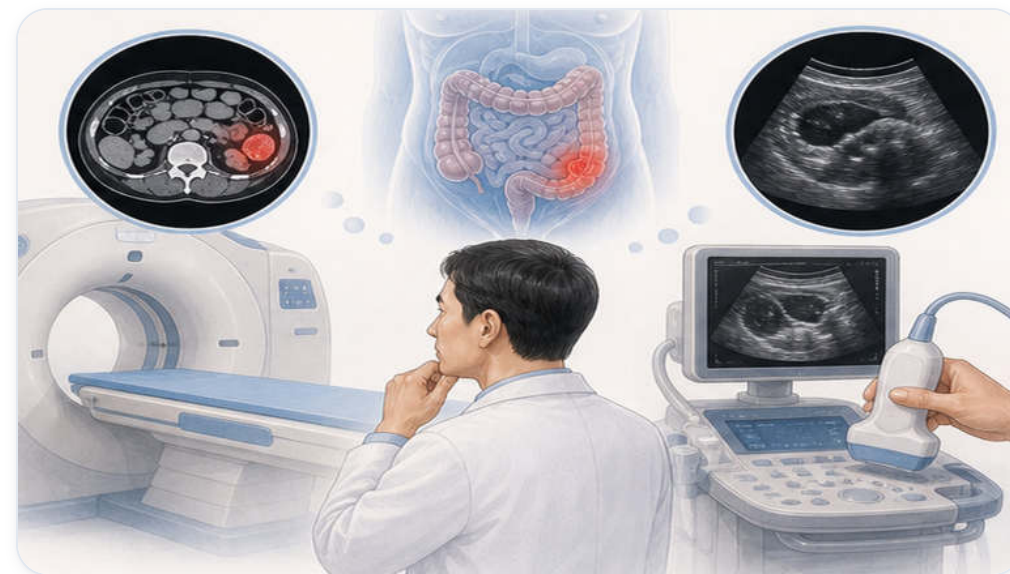
복부 초음파 장점

방사선 노출 없음 — 임신부·소아·반복 추적에 안전. 검사 시간이 짧고 응급실에서 즉시 시행 가능합니다.

US · CONS

복부 초음파 단점

비만·가스가 많으면 관찰이 어려움. 검사자 숙련도에 따라 결과 차이 큼 (검사자 의존성). 소아·임산부 1차 선호.



의원 외래 진료 vs 응급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통증 시작 시간·동반 증상에 따라 의료기관 선택이 달라집니다

+ 의원 외래 진료 가능

- + 복통이 시작된 지 12~24시간 이내 경과
- + 경미한 복통 (메스꺼움·미열 없거나 약함)
- +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압통
- + 약간의 식욕 저하 정도
- + 가능 검사 — 진찰·혈액 검사·복부 초음파
- + 외래 결과에 따라 입원/수술 결정

! 응급실로 가야 함

- 복통 6~12시간 경과 + 심한 통증
- 38°C 이상 고열·오한 동반
- 누워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더 아픔
- 오른쪽 아랫배 국소 압통이 심함
- 가능 검사 — 응급 CT·혈액 검사 즉시 가능
- 응급 수술 (당일 결과 판정) 가능

이럴 때는 즉시 119, 6시간 안에 응급실

복막염·천공의 위험 신호 —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배가 자갈처럼 딱딱해짐 (복벽 강직)

복부 전체가 판자처럼 굳어지면 복막염을 시사 — 천공된 충수·게실에서 장 내용물이 새어 나온 상태입니다.



의식 저하·식은땀·빠른 심박

패혈증·쇼크의 신호로 즉각적인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환자 혼자 두지 말고 119 구급차로 이송하세요.



통증이 갑자기 사라졌다 다시 심해짐

충수·게실이 터지는 순간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었다 전 복부로 퍼지는 양상 — 천공의 위험 신호입니다.



대량 항문 출혈 또는 흑변

게실 출혈·합병성 게실염을 시사 — 어지럼증·실신 동반 시 즉시 119, 자가 운전 금지하고 물·음식 금식.

복통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하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은 시간 싸움 — 위험 신호를 알면 더 빨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PHONE

031-893-4560

ADDRESS

경기 용인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4층

HOURS

평일 08:30~18:30
토요일 08:30~13:30



SCAN TO REVISIT

집에서 다시 보기

QR을 스캔하면 핸드폰에서
같은 자료를 다시 볼 수 있어요